

# 파리 패럴림픽 빛낸 '영웅'들, 당신들이 자랑스롭습니다



23일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참가 광주 선수단 환영 오찬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최고의 경기력 발휘, 든든한 지원”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2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참가 광주 선수단 환영 오찬'을 열고 빛나는 성과를 거둔 16명의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날 환영 오찬에는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정선교 발전위원회 추진단장, 파리 패럴림픽 광주 선수단, 실업팀 감독,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발전위원회

정선교 추진단장은 “파리 패럴림픽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둔 16명의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력이 더 많은 보상이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 6종목 16명(선수 11, 지도자 3, 보조선수 1, 로터 1)이 출전해 대한민국 전체 메달 30개(금 6, 은 10, 동 14) 중 23%에 해당하는 7개(금

1, 은 2, 동 4)의 메달을 획득, 종합순위 22위에 크게 기여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은 “파리 패럴림픽을 목표로 삼아 달려온 선수단의 노고에 광주장애인체육 가족 모두를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참가 전남 선수단 환영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 전남도장애인체육회 “LA 패럴림픽 대비 중장기 계획 수립”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3일 전남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선전을 펼친 전남 선수단 환영식을 개최하고 영웅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환영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이윤리(사격 10m 공기소총 은메달), 유수영(남자 복식 은메달), 서수연(탁구 복식 은메달) 등 패럴림픽 전남선수단, 전

남장애인경기단체 등 도내 체육계 인사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선수단 꽃목걸이, 포상증서, 공로패 수여식과 선수단이 직접 전하는 파리 패럴림픽 간담회 일정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국제대회 입상 포상금을 지급하고 선수단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경기 용품지원과 훈련 환경을 개선하는 등 2028년 제18회

로스앤젤레스 패럴림픽에서 더 많은 전남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박정현 상임부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도 투혼을 발휘해 파리 패럴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전남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를 넘어선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 준 전남의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백희중기자

# “정규 시즌 우승이어 V12 가자”...25일 KS 출정식



'The show must go 1'

## 역대 최다 관중...‘뜨거운 팬心’ 감사 이벤트 2017 V11 이끈 김기태 감독 우승 기원 시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2024 시즌 팬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

KIA는 구단 역대 최다 관중 동원 등 한 시즌 동안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7년만의 정규 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에서의 선전을 다짐하는 뜻에서 'The show must go 1'이라는 주제로 팬 감사 행사를 마련한다.

이날 행사는 선수단 사인회로 시작한다.

정해영, 김도영이 참가하는 팬 사인회의 참여 방법은 구단 SNS를 통해 추후 공지되며, 사인회 참석 선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경기 시작 전에는 정규시즌 우승 트로피 전달식이 진행된다.

KBO 허규현 총재가 최준영 대표이사, 심재학 단장, 이범호 감독과 주장 나성범에게 우승 트로피를 전달하며, 선수단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환중

앞에서 정규시즌 우승 세리머니를 펼칠 예정이다.

특별한 승리 기원 시구 행사도 마련된다.

이날 KIA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는 2017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김기태 감독이 한다.

선수단은 이날 특별 제작한 '광주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팬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으로 푸짐한 경품도 마련한다. 입장 관중 전원에게는 플래시 응원 스티커가 배포되며, 현장 추첨을 통해 기아 The 2024 스포티지 시그니처 그래픽 등급 차량 1대와 LG전자 스탠바이미 GO 12대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경기가 끝나면 한국시리즈 출정식을 거행한다. 출정식을 통해 한국시리즈 엠블럼이 공개되며, 선수단 전체가 그라운드로 나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범호 감독과 주장 나성범은 한국시리즈에서의 선전을 다짐하는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광주 유니폼’을 착용한 KIA 나성범(왼쪽)과 양현준. <KIA 타이거즈 제공>

한편, KIA는 당초 오는 28일 사직 롯데전을 끝으로 정규리그 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N와의 홈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추후 재편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IA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는 NC와의 홈 경기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됐다. /주홍철기자

## KIA, 오늘 2025년 신인 선수입단식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새로운 야기 호랑이들이 팬들 앞에 선다.

KIA는 “24일 오후 3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025년 신인 선수 입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단식에는 최준영 대표이사와 심재학 단장을 비롯한 구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2025년 신인 선수들의 입단을 축하할 예정이다.

입단식은 신인 11명에 대한 소개와 유니폼 착용, 꽃다발 전달, 대표이사 환영사 등의 행사로 채워진다.

입단식을 마친 신인 선수들은 이범

호 감독 및 코칭스태프와 상견례를 갖고, 경기 전 그라운드에서 팬들에게 인사한다.

김태형 등 신인 선수들은 이 자리에서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내년 시즌에 대한 당찬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신인 선수들은 부모님에게 큰절을 올린 뒤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구·시포 행사를 갖는다. 신인 선수들의 부모들이 시구자로 나서고, 신인 선수들이 시포자로 나서 프로 선수로서의 출발을 알린다. /주홍철 기자



23일 열린 FIFA U-20 여자 월드컵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북한 선수단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북한 女축구, U-20 월드컵 제패

### 일본 꺾고 통산 세번째 우승

북한이 '아시아의 강호' 일본을 꺾고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북한은 23일 콜롬비아 보고타의 에스타디오 네메시오 카마초에서 열린 2024 콜롬비아 FIFA U-20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제압하고 최종 승자로 우뚝 섰다.

FIFA U-20 여자 월드컵에서 두 차례 우승(2006·2016년)과 한 차례 준우

승(2008년)을 차지한 북한은 8년 만에 자역대 세 번째 우승을 일궈냈다.

이로써 북한은 독일, 미국과 함께 역대 최다인 3회 우승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2018년 이후 6년 만에 우승을 노린 일본은 2022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2년 전 결승전에서는 스페인에 1-3으로 져 우승이 무산됐다.

북한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7경기를 모두 이겼다. 7경기에서 25골을 터뜨렸고, 4골만 내줬다. /연합뉴스

## 광주FC, 루크아이 스폰서십 체결

### 이정호 감독 콜라보 안경 등 한정판 출시



광주FC가 프리미엄 수면 안경 브랜드 루크아이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광주는 지난 2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서 임근훈 광주FC 경영본부장과 손동휘 루크아이 프로덕트 매니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했다.

루크아이는 운동 선수들과 현대인

의 눈 컨디션 관리와 수면에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수면 안경 브랜드로 최근 젊은 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루크아이는 스폰서십 체결에 앞선 지난 10일 '모델 광주 FC'(MODELO GWANGJU FC), '모델 이정호'(MODELO LEE JUNG HYO) 등 콜라보레이션 한정판 디자인 안경을 출시했고, 현재 루크아이 온라인 쇼룸에서 판매 중이다.

손동휘 루크아이 매니저는 “K리그



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광주FC와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다양한 협업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근훈 경영본부장은 “루크아이는 최근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브랜드로 구단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중기자